

경기도의 고구려 문화유산

경기도의 고구려 문화유산

경기문화총서 1

경기도의 고구려 문화유산

Goguryeo Cultural Properties in Gyeonggi Province

발행일 | 2007년 2월 20일

발행처 |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85

전화 | 031-288-5300

팩스 | 031-288-5379

Homepage://www.musenet.or.kr

편집·제작 | 삼진인쇄 T.031-202-2095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필자 및 경기도박물관의 동의 없이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은 2006년 1월 19일 경기도박물관에서 개최한 「경기도의 고구려 문화유산」 학술세미나 발표문을 수정, 보완하고, 종합토론을 첨부하여 발간하였다.



발간사

압록강 너머 만주지방에서 일어난 고구려는 국력을 확장하면서, 경기 지역과 그 남쪽으로 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기록과 남한 지역에 산재한 고구려 유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는 이들 유적을 거점으로 삼아 한반도 일대에 대한 패권을 차지할 수 있었고, 이는 한국 고대사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전성기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경기도내의 유적은 오늘날 경기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대변해 주면서 남·북 동질성 회복의 문화적 코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그간 우리박물관은 경기 지역의 고구려 유적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임진강·한강 유역의 유적에 대한 광범위한 지표조사와 중요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술자료를 축적하였습니다. 나아가 강연회의 개최와 조사성과 자료집의 발간으로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물론 일반 대중의 관심 확대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2005~2006년의 「우리 곁의 고구려」특별전시회와 학술세미나 개최로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번의 문화총서는 '고구려'에 대한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담아내기보다는, 고고학적 현장조사 및 문헌연구를 토대로 주로 남한 지역 내 고구려의 활동, 유적과 유물의 현황, 대외관계 등을 파악하여 더 나은 연구방향을 찾아보고자 기획하였습니다. 중국과 북한 지역의 고구려 유적지에 대한 탐방이 수월치 않고, 관련 자료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귀중한 글을 거듭 다듬고 발표하여 주신 선생님들과 날카로운 질문을 아끼지 않으신 토론자 선생님들, 그리고 숨쉬있는 토론을 이끌어 주신 최광식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책이 나오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박물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7년 2월

경기도박물관장 이종선

차 례

발간사

기조발표

최근 경기도에서 발굴, 조사된 고구려 유적과 그 역사적 맥락 | 최몽룡 11

주제발표

제1부 경기도 내 고구려 유적 형성의 역사적 배경

5~6세기 고구려의 남진과 영역 범위 | 임기환 35

고구려의 백제 공격과 남진로 | 서영일 79

제2부 유적과 유물을 통해 본 경기도의 고구려

남한 지역 고구려 토기의 성격 | 최종택 113

남한 지역 출토 고구려 기와의 특징 | 심광주 163

남한 지역 출토 고구려 무기의 고찰 | 김성태 213

제3부 고구려의 대외 활동

고선지의 석국(石國)원정 현장 고증 | 정수일 243

종합토론 | 좌장 최광식

토론자 | 공석구, 양정석, 양시은, 김성구, 여호규, 윤용구 277

Goguryeo Cultural Properties in Gyeonggi Province

New Perspectives in the Research of Goguryeo Archaeological Sites and its Historical Context | Choi, Mong-Lyong

A Study on Goguryeo's Territory resulted from Southward Advance in 5~6th Century | Lim Ki Hwan

A Study on the Invasion Routes of Goguryeo to Baekje | Seo Young-il

The Characteristics and Chronology of Goguryeo Pottery from South Korea | Choi, Jong-taik

Characteristics of Goguryeo Roof Tiles discovered in South Korea | Sim Gwang-zhu

A Study of Weapon-Systems of Goguryeo in South Korea | Kim Seong-tae

A Historical Research of Kao Hsien Chih's Seok-Kook Expedition Scene | Jeong Su-il

【기조발표】

최근 경기도에서 발굴, 조사된 고구려 유적과
그 역사적 맥락 | 최몽룡

최근 경기도에서 발굴, 조사된 고구려 유적과 그 역사적 맥락¹⁾

최몽룡 *

한강은 양평군 양수리를 기점으로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나누어진다. 한강과 임진강을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는 한국고고학 편년상 철기시대 전기(기원전 400년~기원전 1년)중에 나타나는 한국 최초의 국가이며 역사시대의 시작이 되는 衛滿朝鮮(기원전 194년~기원전 108년)부터 한반도에 있어서 중요한 무대가 된다. 특히 그 다음의 삼국시대가 되면 父子之間의 나라로 알려진 高句麗와 百濟의 각축전이 전개된다. 이는 고구려에서는 가장 강성한 왕인 19대 광개토왕(서기 391년~413년)과 20대 장수왕(서기 413년~491년), 그리고 백제는 13대 근초고왕(서기 346~375년) 때의 일이다. 이러한 관계는 서기 551/553년, 신라의 24대 진흥왕(서기 540년~576년)이 한강유역에 진출할 때까지 지속된다. 그래서 경기도에는 백제, 고구려와 신라의 유적이 많이 남아 있으며 그 유적들도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된다.

*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chml@snu.ac.kr)

1) 필자주: 이 글은 2004년 12월 9일 경기고고학회·기전문화재단이 주관한 「경기지역 고구려유적 정비·활용을 위한 학술토론회」에서 행한 기조강연인 「역사적 맥락에서 본 경기도 소재 고구려유적의 중요성」(7~18쪽)이란 글을 약간 수정, 보완한 것이다.

① 『三國史記』에 의하면 2대 瑠璃王(기원전 19년~서기 18년 재위)은 재위 22년인 서기 3년, 고구려 초대 東明王(기원전 37년~기원전 19년 재위)이 기원전 37년에 세운 최초의 도읍지인 卒本/桓仁(五女山城, 下古城子, 紇升骨城 등이 초기 도읍지와 관련된 지명임)에서 集安(輯安)으로 옮겨 國內城을 축조하고, 10대 山上王 2년(서기 197년~227년 재위) 서기 198년에 丸都山城을 쌓고 있다. 중국 문물연구소는 길림성 문물연구소와 함께 2004년 6월 29일 江蘇省 蘇州에서 열린 제28차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ICOMOS)에 세계문화유산(WHC)으로 등재(2004년 7월 1일 등재됨)하기 위해 丸都山城(南瓮門, 瞭望臺와 宮址 등), 國內城, 五女山城, 太王陵, 將軍塚와 五盔墳 등 43건을 발굴, 정비하였다(북한은 같은 날 평양 동명왕릉, 진파리 고분 15기, 호남리 사신총, 강서 삼묘 등 모두 고분 97기를 등재함). 그 결과 太王陵을 19대 廣開土王(서기 391년~413년 재위)의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 측의 발굴조사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따라 유적을 설명해 나가고 있다. 기원전 37년에 세운 고구려 건국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서기 371년 백제 13대 近肖古王(서기 346년~375년 재위) 때 평양에서 벌인 전투에서 16대 故國原王(서기 331년~371년 재위)이 전사한다. 또 20대 長壽王(서기 413년~491년 재위) 때인 서기 427년에 평양으로 천도한다. 그리고 21대 蓋鹵王(서기 455년~475년 재위) 때 서기 475년에 한성시대의 백제(기원전 18년~서기 475년)는 고구려에 의해 망하고, 22대 文周王(서기 475년~477년 재위)이 공주로 천도한다. 여기에 高句麗, 百濟와 新羅는 신화와 역사적 사건으로 서로 얽히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 고대사에서는 백제와 신라의 초기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삼국시대 초기에 대한 기본적인 서술은 通時的, 進化論的, 歴史的 脈絡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유적들을 통해 고구려와 백제·신라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첫 번째의 중요한 연구방향이자 목적이 된다.

② 필자는 청동기, 철기시대 전기와 후기(삼국시대 전기)의 고고학과 고대사의 흐름의 일관성에 무척 관심을 가져 몇 편의 글을 발표한 바 있다. 1988년~2004년의 제5·6·7차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부터 1997년~2002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한국사 1·3권과 4권을 이르기까지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란 용어를 제외한 새로운 편년을 설정해 사용해 오고 있다. 한국 고고학 편년은 구석기시대-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기원전 2,000년~기원전 400년)-철기시대 전기(기원전 400년~기원전 1년)-철기시대 후기(삼국시대 전기 또는 삼한시대 : 서기 1년~서기 300년 : 종래의 원삼국시대)-삼국시대 후기(서기 300년~서기 660/668년)로 설정된다. 이러한 편년에 따르면 고구려사의 초기는 삼국시대 전기에 속한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고고학 시작은 衛滿朝鮮(기원전 194년~기원전 108년)때 부터이다. 그 중 철기시대 전기에 속하는 기원전 400년에서 기원전 1년까지의 약 400년의 기간은 한국고고학과 고대사에 있어서 매우 복잡하다. 이 시기에는 한국고대사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을 받아 漢字를 알게 되고 국가가 형성되는 등 역사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청동기시대에 도시·문명·국가 발생 하는 전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가 이보다 늦은 철기시대 전기에 나타난다. 위만조선은 漢나라 7대 武帝(기원전 141년~기원전 87년)가 보낸 원정군에 의해 망한다. 이 때는 『사기』의 저자인 사마천의 나이 37세이다. 그의 기록에 의하면 평양 근처의 왕검성에 자리하던 위만조선이 문헌상에 뚜렷이 나타나는 한국 최초의 고대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다. 위만 조선은 위만-이름을 알 수 없는 아들-손자 右渠-太子 長을 거치는 4대 87년 간 존속하다가 중국 한나라에 의해 망한다. 그리고 樂浪, 臨屯, 玄菟(이상 기원전 108년 설치)와 眞番(기원전 107년 설치)의 한사군이 들어서는데, 오늘날 평양 낙랑구역에 樂浪이, 그리고 황해도와 경기도 북부에 帶方(처음 낙랑군에 속하다가 獻帝 建安 서기 196년~220년간에 대방군이 됨)이 위치한다. 이들은

기원전 3~2세기 경부터 존재하고 있던 마한과 기원전 18년 마한의 바닷가에 나가 선 백제, 그리고 동쪽의 東穢, 남쪽의 辰韓과 弁韓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문헌상 보이는 백제의 특징은 부여 또는 고구려로부터 이주한 정권으로서 나름대로 정통성을 확보해 나가는 동시에, 주위 마한(馬韓王 또는 西韓王이 통치)에 대한 정복을 강화하여 조금씩 세력을 확장해 간다. 그들의 세력확장은 고고학적으로 보이는 산성이나 고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백제의 건국자는 朱蒙(高朱蒙/東明聖王)의 셋째 아들인 濞祚(기원전 18년~서기 28년 재위)이다. 그는 아버지인 주몽을 찾아 부여에서 내려온 유리왕자(고구려의 제 2대왕)의 존재에 신분의 위협을 느껴 漢 成帝 鴻嘉 3년(기원전 18년) 형인 沸流와 함께 남하하여 하북 위례성(현 중랑천 근처이며, 온조왕 14년, 기원전 5년에 옮긴 하남 위례성은 강동구에 위치한 몽촌토성으로 추정됨)에 도읍을 정하고, 형인 비류는 彌鄒忽(인천)에 근거를 삼는다. 이들 형제는 『삼국유사』에 의하면 고구려의 건국자인 주몽의 아들로, 그리고 『三國史記』 百濟本紀 別傳(권23)에는 그의 어머니인 召西奴가 처음 優台의 부인이었다가 나중에 주몽에게 개가하기 때문에 주몽의 아들로 기록된다. 온조는 天孫인 해모수, 용왕의 딸인 하백녀(유화)의 신화적인 요소와, 알에서 태어난 주몽의 탄생과 같은 난생설화가 없이, 처음부터 朱蒙-소서노-우태라는 구체적이고 실존적인 인물들 사이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백제에는 부여나 고구려다운 건국신화나 시조신화가 없다. 이것이 백제가 어버이나라인 고구려에 항상 열등의식을 지녀온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은 온조왕 원년에 東明王廟를 세운 것이나, 백제 13대 근초고왕(346~375년)이 371년 평양으로 쳐들어와 고구려 16대 故國原王(331~371년)을 사살하지만 평양을 백제의 영토로 편입시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한성으로 되돌아오는 점 등에서 이해된다. 그래서 백제

의 왕실은 고구려 왕실에 대한 열등감의 극복과 아울러 왕실의 정통성을 부여하려고 애를 써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고구려와 백제는 부자지간의 나라로 신화와 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경기도 소재 고구려 유적의 발굴·조사의 두 번째 중요성은 고구려와 백제의 역사적 맥락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한성시대 백제의 대표적인 묘제는 적석총, 토광묘, 옹관묘, 석곽묘와 석실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적석총은 고구려 이주세력의 분묘로 보이며, 초기 백제의 지배세력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적석총은 무기단식 적석총과 기단식 적석총으로 대별된다. 한강 지역의 적석총에서는 무기단식이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기단식을 축조할 때 남하해 왔거나, 아니면 하천 근처에 있던 무기단식 적석총이 모두 물에 의해서 없어진 때문으로 보인다. 石村洞 古墳群(사적 243호)이 있는 석촌동에는 백제 시대의 대형 적석총 7기와 함께 토광묘, 옹관묘 등이 30여 기 이상 확인되었다. 고구려의 영향인 돌무지무덤이 석촌동에 산재한다는 것은 고구려와 한성백제의 건국세력이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 이 고분군 지역에는 3, 4호분과 같은 대형분 이외에도 소형의 토광묘와 같은 평민이나 일반 관리들의 것도 섞여 있으며, 서로 시기를 달리하면서 중복되게 형성된 것도 있어서 석촌동 일대에는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계급의 사람의 묘지가 쓰여진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백제가 기원전 18년에 앞서 살고 있던 마한의 기반 위에 건국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여기에는 기원전 18년에 건국한 백제에 앞서 마한이 존재했으며 백제인은 그들 토착세력과 공존해 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묘제가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백제 건국 전부터 있어 왔던 토광묘가 후일 석곽묘로 발전해 나간다는지, 석곽묘·석실묘의 기원과 그들의 선후관계를 밝히는 것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고고학계의 과제이다. 아마도 이들 묘제의 변화는 한성시대 백제의 성장에

다른 토착세력인 마한의 축소와 관련이 있으며, 그 시작은 13대 근초고왕이 서기 369년 천안 용원리를 중심으로 하는 目支國으로 대표되는 마한세력을 토벌하고, 마한의 중심세력이 공주 의당면 수촌리나 익산 영등동 쪽으로 옮겨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마지막의 마한의 목지국은 나주 반남면 대안리·덕산리·신촌리(사적 76·77·78호)와 북암리(사적 404호) 일대에 위치하게 되며, 그 멸망 연대는 서기 5세기 말이나 6세기 초가 된다. 이는 나주 금천면 신가리 당가 窯址에서 확인된다.

석촌동에서 제일 거대한 3호분은 긴 변 45.5m, 짧은 변 43.7m, 높이가 4.5m의 규모로, 형태는 방형 기단형식의 돌무덤이다. 계단은 3단까지 확인되었으며, 그 시기는 3세기 중엽에서 4세기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1975년 조사된 4호분은 한 변이 23~24m의 정방형으로 초층을 1면 세 개 미만의 護石(받침돌, 보강제 등의 명칭)으로 받쳐 놓아 將軍塚과 같은 고구려의 계단식 적석총 축조수법과 유사하다(신라의 경우 31대 신문왕릉(사적 181호)과 33대 성덕왕릉(사적 28호)에서 이와 같은 호석들이 보인다). 그러나 그 연대는 3호분과 비슷하거나 약간 늦은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적석총보다 앞선 시기부터 존재했을 토광묘와 판축기법을 가미하여 축조했기 때문에 순수 고구려 양식에서 약간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래도 발굴 당시 사적 11호 풍납토성의 경당지구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漢-樂浪 계통으로 보이는 기와 편이 많이 수습되었다. 이는 集安의 太王陵, 將軍塚과 千秋塚 등의 석실이 있는 계단식 적석총의 상부에서 발견된 건물터나 건물지붕에 얹은 기와 편들로 부터 구조상 상당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즉 고구려의 적석총은 무덤(墓)인 동시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廟의 기능인 享堂의 구조를 무덤의 상부에 가지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연도가 있는 석실/석곽을 가진 석촌동 4호분 적석총도 축조 연대만 문제가 될 뿐 고구려의 적석총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고구려 계통의 무덤 양식인 것이다. 1987년에 조사된 1호분의 경우 왕릉급의 대형 쌍분임

이 확인되었다. 그 쌍분 전통은 압록강 유역의 환인현 고령묘자촌에 보이는 이음식 돌무지무덤과 연결되고 있어 백제 지배세력이 고구려와 관계가 깊다는 것에 또 하나의 증거를 보태준다. 자강도 시중군 로남리, 집안 양민과 하치 등지의 고구려 초기의 무기단식 적석총과 그 다음에 나타나는 집안 통구 禹山下, 환도산성하 洞溝와 자강도 자성군 서해리 등지의 기단식 적석총들은 서울 석촌동뿐만 아니라 남한강 및 북한강의 유역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 남한강 상류에는 평창군 여만리와 응암리, 제천시 양평리와 도화리 등에서 발견된 바 있으며, 북한강 상류에서는 화천군 간척리, 춘성군 천전리, 춘천 중도에서도 보고되었다. 또한 경기도 연천군 삼꽃리를 비롯하여, 군남리와 학곡리에서도 백제시대의 초기 적석총이 발견되었다. 임진강변인 연천 중면 횡산리에서도 적석총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백제 적석총이 북에서 남하했다는 설을 재삼 확인시켜주는 것이며, 아울러 백제 적석총에 대한 많은 시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구려인이 남한강을 따라 남하하면서 만든 것으로 추측되는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傳 溫達(?~서기 590년 영양왕 1년)장군묘」의 적석총이 2001년 11월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되었는데 이것은 山淸에 소재한 가야의 마지막 왕인 仇衡王陵(사적 214호)의 기단식 적석구조와 같이 편년이나 계통에 대하여 아직 학계의 정확한 고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강 유역의 각지에 퍼져 있는 적석총의 분포상황으로 볼 때 고구려에서 나타나는 무기단식, 기단식과 계단식 적석총이 모두 나오고 있다. 이들은 당시 백제 『三國史記』 溫祚王代(13년, 기원전 6년)의 기록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동으로는 走壤(춘천), 남으로는 熊川(안성천), 북으로는 淇河(예성강)에 까지 세력을 확보하고 있었음을 확인시켜준다. 이처럼 한강 유역에 분포한 백제 초기의 적석총들은 이러한 백제 초기의 영역을 알려주는 고고학적 자료의 하나이며, 이는 오히려 문헌의 기록을 보충해 주고 있다 하겠다. 고구려와 백제간의 역사적 맥락 및 계승성이 적석총으로

확인된다. 고구려의 적석총이 백제건국의 주체가 된다는 점은 고고학 자료를 통해 본 고구려 연구의 세 번째 중요성이 된다.

백제는 기원전 3~2세기에 성립한 앞선 馬韓의 바탕 위에서 성립한다. 그래서 백제 초기의 문화적 양상은 마한의 것과 그리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백제의 건국은 『삼국사기』의 백제 기록대로 기원전 18년으로 보아야 한다. 한강 유역에서 마한으로부터 할양받은 조그만 영역에서 출발한 백제가 강성해져 영역을 확장해 나가자 대신 마한은 그 범위가 축소되어 직산, 성환과 천안 용원리 일대(서기 369년 백제 근초고왕에 의해 점령당함)-공주·익산-나주로 그 중심지가 이동이 됨을 볼 수 있다. 백제를 포함한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을 인정해야만 현재의 한국고대사가 쉽게 풀려나갈 수 있다. 이는 최근 문제가 되는 고구려 초기 역사와 신라·백제와의 맥락에서 살펴 볼 수 있다. 그리고 한성시대 백제(기원 18년~서기 475년)에도 석성이 존재해 있었으며, 이는 하남시 이성산성(사적 422호), 이천 설봉산성(사적 423호), 설성산성(경기도 기념물 76호, 4차 조사 시의 방사성탄소 연대는 서기 370년~410년 사이의 축조임을 알려줌)과 안성 죽주산성(경기도 기념물 69호)과 망이산성(경기도기념물 138호, 현재까지의 조사로는 토성만이 백제의 것으로 확인됨)에서 볼 수 있다. 백제 석성 축조의 기원은 13대 근초고왕이 서기 371년 평양에서 벌인 고국원왕과의 전투에서부터 볼 수 있다. 이는 고구려의 國內城과 丸都山城에서 영향을 받아 만들었을 것이다. 고구려는 2대 유리왕 때인 서기 3년에 집안의 國內城을 축조하고 10대 산상왕 때인 서기 198년에 丸都山城을 쌓고 있다. 2001년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된 청주 부용면 부강리 남성골산성의 발굴의 결과 고구려군에 의한 함락이 서기 475년으로 그 하한이 되는 점도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잘 보여준다. 방사성탄소연대는 서기 340~370년과 서기 470~490년의 두 시기로 나온다. 이 남성골산성

은 청주 井北洞土城(사적415호 : 서기 130~260년 경 축조)과 같이 아마도 마한시대의 초축으로 후일 백제의 성이 되었다가 475년 경 고구려군에 함락 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성시대 백제의 영역에 속하는 지역에서의 백제성은 포천 반월성(사적 403호), 연천 호로고루성(경기도 기념물 174호)과 연기 운주성 등이 있다. 瓠蘆古壘城은 발굴 결과 처음에는 백제시대의 판축으로 이루어진 토성으로 그 후 고구려의 석성으로 대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토성이 원래 백제의 토성이었는데 475년 경 고구려군의 침입으로 고구려 석성으로 바뀐 것과 역사적 맥락을 함께 한다. 이들은 13대 근초고왕의 북진정책과 19대 광개토왕과 20대 장수왕의 남하정책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들 모두 한성시대의 백제가 망하는 서기 475년 경 전후의 역사적인 맥락을 알려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파주 주월리(육계토성 내, 서기 260~400년, 서기 240~425년)와 포천 자작리의 백제시대 집자리의 존재는 이들을 입증해준다. 한성시대의 백제의 영역은 근초고왕 때가 가장 강성했으며 그 영역도 여주 연양리와 하거리, 진천 석장리, 삼용리(사적 344호)와 산수리(사적 325호)를 넘어 원주 법천리에 이르며 강원도 문화재연구소가 발굴했던 춘천 거두리와 홍천 하화계리까지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충남 연기 운주산성의 경우 이제까지 통일신라시대의 성으로 추정되었으나 발굴결과 백제시대의 초축인 석성으로 밝혀지고 있다. 백제시대의 석성으로는 하남시 이성산성(사적 422호), 이천 설봉산성(사적 423호), 설성산성(경기도 기념물 76호), 안성 죽주산성(경기도 기념물 69호), 평택 자미산성, 그리고 충주의 장미산성(사적 400호) 등이 알려져 있어 서로 비교가 된다. 그리고 2002~3년에 걸쳐 경기도박물관에 의해 파주 월룡산성, 의왕시 모락산성과, 고양시 법곶동 맥절산성 유적 등이 조사되었다. 당시 무역항구나 대외창구의 하나로 여겨진 화성 장안 3리나 멀리 광양 마노산성(전라남도 기념물 173호)에서도 고구려의 유물이 발견되거나 그 영향이

확인된다. 최근 새로이 발견된 유적들로 서울 근교의 삼성동토성, 아차산성(사적 234호), 광동리, 태봉산, 도락산, 불곡산, 수락산, 국사봉, 망우산, 용마산, 아차산, 흥련봉, 구의동, 자양동과 시루봉 보루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을 통해 한성시대 백제의 멸망 당시 고구려가 남하한 육로를 알 수 있다. 아차산성의 경우 1996년 보수 시 석성과 함께 보축 시설이 새로이 발견되었다. 석성의 연대는 삼국시대에, 보축은 통일신라시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곳은 삼국시대부터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도 이곳을 보축해 전략적 요충지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백제 초기부터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는 역사적 맥락을 이곳에서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송파구 일대의 지역은 백제 초기에는 수도로서, 삼국시대 중기 이후에는 삼국의 한강 유역 확보를 위한 쟁탈의 장으로서 한성시대의 백제를 연구하는데 빼놓아서는 안될 곳이다. 그리고 이 시기의 유적 또는 성벽의 발굴 시 그 유적이 속하는 한 시기·시대에 편중해 연구하지 말고 역사적 맥락 속에서 유기체적인 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앞 시대에 만들어진 성내 건물지나 성벽 등 유구에 대한 철저한 파괴, 개축과 보수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백제는 13대 근초고왕(서기 346년~375년), 고구려는 19대 광개토왕(서기 391년~413년)과 20대 장수왕(서기 413년~491년), 그리고 신라는 24대 진흥왕(서기 540~576년 재위) 때 가장 활발한 영토확장을 꾀한다. 신라는 진흥왕 12년(서기 551년) 또는 14년(서기 553년) 한강 유역에 진출하여 新州를 형성한다. 백제는 근초고왕 때(서기 369년 경) 천안 용원리에 있던 마한의 目支國 세력을 남쪽으로 몰아내고, 북으로 평양에서 16대 고국원왕을 전사시킨다. 그 보복으로 고구려의 광개토왕-장수왕은 해로로 강화도 대릉리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華蓋山城과 寅火里 分水嶺과 백제시대의 인천 영종도 퇴피재 토성을 거쳐 한강

과 임진강이 서로 만나는 지점인 해발 119m, 길이 620m의 퇴피식 산성인 關彌城(坡州 烏頭山城, 사적 331호)을 접수하고, 육로로 연천 瓠蘆古壘城, 파주 月籠山城과 德津山城을 거쳐 임진강과 한강을 관장하고 계속 남하하여 하남 二聖山城(사적 422호)까지 다다른다. 그리고 남한강을 따라 영토를 확장하여 최후의 고구려의 남쪽 경계는 증원(충주) 고구려비(국보 205호), 정선 애산성지, 포항 냉수리(경주 호우총의 경우 國岡上廣開土地好太王壺杆十이라는 명문이 나와 고구려에서 얻어온 祭器가 부장된 것으로 보인다)에 이른다. 그리고 고구려의 묘제 중 석실묘는 연천 신답리(방사성 탄소연대는 서기 520/535년이 나옴), 포항 냉수리와 춘천 천전리에서도 나타난다. 고구려의 영향을 받거나 고구려의 것으로 추측될지 모르는 것으로는 영풍 순흥 태장리(乙卯於宿知述干墓, 서기 553년, 사적 238호)와 순흥 읍내리(사적 313호) 벽화분들을 들 수 있으며, 고구려 유물이 나온 곳은 대전 월평동 산성, 화성 장안 3리, 서천 봉선리와 홍천 두촌면 역내리 유적 등이 있다. 이 시기는 고구려가 가장 강하던 19대 광개토왕(서기 391~413년)과 20대 장수왕(서기 413~491년 재위) 때의 남쪽 경계선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는 서기 4~5세기 때이다. 광개토왕과 장수왕 때 백제를 침공하기 위한 해로와 육로의 경유지를 살펴보면 선사시대 이래 형성된 通商圈(interaction sphere) 또는 貿易路와도 부합한다. 주로 바다나 강을 이용한 水運이 절대적이다. 이러한 관계는 고구려 소수림왕(서기 372년), 백제 침류왕(서기 384년)과 신라 23대 법흥왕(서기 527년) 때 정치적 기반을 굳건히 하기 위한 불교의 수용과 전파를 통해 확대된다. 백제의 불교수용 초기 절터로 하남 天王寺를 들 수 있다. 남한 내에 소재하고 있는 고구려 유적의 대부분이 경기북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다시 말해 경기북부 지역은 고구려 유적의 보고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가운데 임진강과 한탄강이 지류들과 합류하는 강안 대지에 형성된 호로그루, 당포성, 은대리성 등은 모두 고구려의 남방 거점으로

활용된 중요한 성곽이었다. 이들은 모두 고구려가 남방의 신라나 백제를 견제할 목적으로 구축한 한강-임진강 유역의 고구려 관방유적군 가운데에서도 대규모에 속하는 성곽이며 광개토왕~장수왕대에 이르는 시기에 추진된 남진정책의 배후기지로 활용되었다. 유적의 보존 상태 또한 매우 양호하다. 연천 호로그루에서는 잘 보존된 성벽이 확인되었고, 남한 내에서는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고구려 기와가 출토되어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연천 당포성은 고구려 축성양식을 밝힐 수 있는 폭 6m, 깊이 3m의 대형 垓字를 비롯하여 동벽 상단 부위에 이른바 ‘柱洞’들이 확인되고, 성벽에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 홈이 파여져 있고 그 끝에 동그랗게 판 確돌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주동은 전남 광양시 광양 용강리 백제의 마로산성의 개거식 남문 및 동문과도 비교가 된다. 이것은 앞으로 조사가 더 진행되어야 알겠지만 아마도 성문이 처음 開掘式에서 이성산성 동문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懸門式으로 바뀌었음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남문의 성벽축조에서 고구려의 영향으로 보여지는 ‘삼각형고임’이나 성벽 기초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한 단계씩 뒤로 물러가는 ‘뒤물림’ 축조수법도 나타난다. 이는 파주 덕진산성과 안성 망이산성에서도 보인다. 은대리성은 본래 동벽과 북벽 단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백제의 판축토성이었다가 고구려에 넘어가 석성으로 개조된 비교적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성곽으로 이 일대 고구려 성곽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것에 속한다. 이 성은 지역 거점이거나 治所城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경기도내에서 고구려의 통치방식을 연구할 때 제외될 수 없는 중요한 곳이라 할 수 있다. 이 점 또한 고구려의 유적을 발굴, 조사하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의 중요성이 된다.

경기도에서 발견되는 고구려 유적들은 고구려의 최남단 전진기지가

자 백제와의 접경지로 고구려와 백제 양국간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살펴 균형있는 연구를 살릴 수 있는 곳이다. 일시적인 유행으로 남한 내 고구려 유적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다보면 비교적 상대적인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백제사 연구는 뒷전으로 밀리게 되어 경기도내에서 백제사 연구는 불모의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반면에 백제사만을 강조한다면 그나마 제대로 남아 있는 고구려 유적에 대한 연구의 앞날도 매우 불투명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고구려 유적의 연구는 초기 백제의 중심지인 경기도의 특색을 살려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배제시킨 고구려 편향의 조사 연구결과는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경기도에서 조사된 고구려 유적들을 통하여 위만조선, 낙랑과 고구려, 그리고 마한과 백제와의 역사적 관계와 맥락을 좀더 신중히 고려하여 균형있는 연구가 필요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임진강과 남한강 유역에 만들어진 고구려 유적의 주대상(主敵)이 원삼국시대가 아닌 역사상의 실체인 백제와 신라이기 때문이다. 그중 고구려와 백제간의 끊임없는 역사는 장수왕과 개로왕 사이에 일어난 한성시대 백제의 멸망으로 이어졌고, 그 해가 서기 475년이였다.

參考文獻

圖 錄

- 경기도박물관, 2000, 『고구려: 한강유역의 고구려 요새』.
 서울대학교박물관, 2000, 『고구려: 한강유역의 고구려 요새』.
 한양대학교박물관, 2005, 『풍납과 이성-한강의 백제와 신라문화 -』
 한양대학교 개교 66주년 기념 특별전.

單 行 本

- 경기문화재단, 2003, 『경기도의 성곽-기전문화예술총서』13.
 박대재, 2005, 『중국의 한국사 왜곡(국사교과서 순환 교원연수 교재)』,
 국사편찬위원회.
 백종오, 2005, 『고구려 기와 연구』, 단국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주류성, 2006 출간 예정).
 백종오 · 김병희 · 신영문, 2004, 『한국성곽연구논저총람』, 서경.
 백종오 · 신영문, 2005, 『고구려유적의 보고』, 경기도박물관.
 이종욱, 2005, 『고구려의 역사』, 김영사.
 최몽룡, 2004, 『동북아 청동기시대 문화연구』, 주류성.
 2005, 『한성시대 백제와 마한』, 주류성.

論 文

- 강동석 · 이희인, 2002, 「강화도 교동 대룡리 패총」,
 『임진강유역의 고대사회』, 인하대학교박물관.
 백종오, 2002, 「임진강유역 고구려 관방체계, 임진강유역의 고대사회」,
 인하대학교박물관.
 2003, 「고구려와 신라기와 비교연구-경기지역 고구려성곽
 출토품을 중심으로」, 『백산학보』67, 백산학회.

- 2003, 「朝鮮半島臨津江流域の高句麗關防體系研究」,
 『東北亞歷史與考古信息』總第40期.
 2004, 「포천 성동리산성의 변천과정 검토」, 『선사와 고대』20,
 한국고대학회.
 2004, 「백제 한성기 산성의 현황과 특징」, 『백산학보』69,
 백산학회.
 2004, 「임진강유역 고구려 평기와 연구」, 『문화사학』21,
 한국문화사학회.
 2005, 「최근 발견 경기지역 고구려 유적」, 『북방사논총』7,
 고구려연구재단.
 차용걸, 2003, 「충청지역 고구려계 유물출토 유적에 대한 소고
 -남성골 유적을 중심으로-」,
 호운최근목교수정년기념간행위원회.
 최몽룡, 1983, 「한국고대국가의 형성에 대한 일 고찰-
 위만조선의 예-」, 김철준교수회갑기념사학논총.
 1985, 「고고학자료를 통해본 백제초기의 영역고찰 -도성 및
 영역문제를 중심으로 한성시대 백제의 성장과정」,
 천관우선생환력기념한국사학논총.
 1985, 「고대국가성장과 무역 -위만조선의 예-」,
 『한국고대의 국가와 사회』, 역사학회편.
 1987, 「한국고고학의 시대구분에 대한 약간의 제언」,
 최영희교수회갑기념한국사학논총.
 1989, 「삼국시대 전기의 전남지방문화」, 『성곡논총』 20,
 성곡학술문화재단.
 1989, 「역사고고학연구의 방향」,
 『한국상고사 연구현황과 과제』, 민음사.
 1990, 「전남지방 삼국시대전기의 고고학연구현황」,

- 『한국고고학보』 24, 한국고고학회.
- 1993, 「철기시대 : 최근 15년간의 연구성과」, 『한국사론』 23, 국사편찬위원회.
- 1993, 「한국 철기시대의 시대구분」, 『국사관논총』 50, 국사편찬위원회.
- 1997,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한국사』 3, 국사편찬위원회.
- 2000, 「21세기의 한국고고학 : 선사시대에서 고대국가의 형성까지」, 『한국사론』 30, 국사편찬위원회.
- 2002, 「21세기의 한국고고학의 새로운 조류와 전망(27회 학술 발표대회기조강연)」, 한국상고사학회.
- 2002, 「고고학으로 본 문화계통의 다원론적인 입장-」, 『한국사』 1, 국사편찬위원회.
- 2003, 「백제도성의 변천과 문제점」, 『서울역사박물관 연구논문집』 창간호.
- 2003, 「고고학으로 본 마한, 익산문화권 연구의 성과와 과제 (16회 국제학술회의)」,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2003, 「한성시대의 백제와 마한」, 『문화재』 36, 국립문화재연구소.
- 2004, 「朝鮮半島の 文明化-鐵器文化와 衛滿朝鮮-日本 國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19輯.
- 2004, 「통시적으로 본 경기도의 통상권(32회 학술발표대회 기조강연)」, 한국상고사학회.
- 2004, 「역사적 맥락에서 본 경기도 소재 고구려유적의 중요성」, 『경기지역 고구려유적 정비·활용을 위한 학술토론회』, 서울경기고고학회·기전문화재연구원.
- 하문식·백종오·김병희, 2003, 「백제 한성기 모락산성에 관한 연구」, 『선사와 고대』 18, 한국고대학회.

報告書

- 강원문화재연구소, 2003, 『국도 44호선(구성포-어론간)도로 확장 구간내 철정·역내리 유적』.
- 2004, 『천전리유적』.
- 경기도박물관, 1999, 『파주 주월리 유적』.
- 2003, 『월룡산성』.
- 2003, 『고양 먹절산 유적 발굴조사』.
- 2004, 『포천 자작리 유적 II-시굴조사보고서-』.
- 광진구, 1998, 『아차산성 '96 보수구간내 실측 및 수습발굴조사보고서』.
- 국립중앙박물관, 2000, 『원주 법천리 고분군-제2차 학술발굴조사-』.
- 국립중앙박물관, 2000, 『원주 법천리 I (고적조사보고 31책)』.
- 기전문화재연구원, 2002, 『연천 학곡제 개수공사지역 내 학곡리 적석총 발굴조사』.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 2001, 『포천 고모리산성지표조사 완료 약보고서 및 보고서 (총서 11책)』.
- 2002~5, 『이천 설성산성 발굴조사 (2~4차) 보고서』.
- 2001, 『안성 죽주산성 지표 및 발굴조사 완료 약보고서』.
- 2001, 『포천 반월산성 5차 발굴조사보고서』.
- 2003, 『연천 은대리성 지표 및 발굴조사 보고서』.
- 2004, 『평택 서부관방산성 시·발굴조사 보고서』.
- 서울대학교박물관, 1975, 『석촌동 적석총 발굴조사보고』.
- 2000, 『아차산성』.
- 2000, 『아차산 제 4보루』.
- 2002, 『아차산 시루봉보루』.
- 세종대학교박물관, 2001, 『하남 미사동 선사유적 주변지역 시굴조사』.
- 수원대학교박물관, 2005, 『화성 장안리 유적』.

- 순천대학교박물관, 2005, 『광양 마로산성I』.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국방유적연구소,
 2003, 『정선 애산리산성 지표조사보고서』.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소,
 2001, 『연기 운주산성 발굴조사 개략보고서』.
 2003, 『서천-공주간(6-2)고속도로 건설구간내 봉선리유적』.
 충북대학교박물관, 2002, 『청원 I.C.-부용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구간 충북 청원 부강리 남성골 유적』.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2001, 『대전 월평동산성』.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3, 『연천 신답리고분』.
 한양대학교박물관, 2000, 『이성산성(제8차 발굴조사보고서)』.
 2001, 『이성산성(제9차 발굴조사보고서)』.
 2002, 『이성산성(제10차 발굴조사보고서)』.

略報告書

- 경기도박물관, 2005, 「파주 육계토성 시굴조사 지도위원회자료집」.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2005, 「홍련봉 2보루 1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2005, 「아차산 3보루 1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4, 「홍련봉 1보루 2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3, 「이천 설봉산성 4차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자료집」.
 2004, 「안성 죽주산성 남벽 정비구간 발굴조사 지도 위원회
 자료집」.
 2005, 「안성 망이산성 3차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자료집」.

- 목포대학교 · 동신대학교박물관,
 2001, 「금천-시계간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구간내 문화재발굴
 조사 지도위원회현장설명회자료」.
 순천대학교박물관, 2004, 「광양 마로산성 3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2005, 「광양 마로산성 4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국방유적연구소,
 2003, 「연천 당포성 지표 및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자료집」.
 2004, 「파주 덕진산성 시굴조사지도 위원회자료」.
 인하대학교박물관, 2000, 「인천 문학경기장내 청동기유적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
 중원문화재연구원, 2004, 「충주 장미산성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집」.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1, 「하남 천왕사지 시굴조사 지도위원회 자료집」.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1, 「연천 호로그루 지도위원회자료」.
 2001, 「연천 군남제 개수공사지역 문화재 시굴조사 지도
 위원회자료」.
 한양대학교박물관, 2001, 「단양 사지원리 태장이묘 발굴조사 지도
 위원회 자료집」.

[Abstract]

New Perspectives in the Research of Goguryeo Archaeological Sites and its Historical Context

Choi, Mong-Lyong *

This keynote address paper given at the "Symposium with the topics of Goguryeo State(高句麗, BC 37~AD 668) and its culture" had emphasized on the historical context in relationship with such archaeological sites so far excavated as fortresses and tombs in the Hangang(漢江) and Imjingang(臨津江) River basin located in Gyeonggi-do province, and Jian(集安) in Liaoning province, in which Chinese and DPRK archaeologists had made chronology in terms of the historical records from the Samguksagi(『三國史記』), a historical book about the Three Kingdoms of Goguryeo, Baekje(百濟) and Silla(新羅) Dynasties. But some archaeologists and ancient historians in Korea did not originally and completely trust the historical records of the Samguksagi before the kings of Taejo(太祖, reign: AD 53~146), Naemul(奈勿, reign: AD

356~402) and Goi(古爾, reign: AD 234~286) in the name of historical materials criticism, which they assert are incredible, and rather coined the term, "Proto-Three Kingdoms Period" instead of using the formal "Former Three Kingdoms Period" during AD 1~300. But archaeological sites and artefacts recently excavated in the area of Korean peninsula and Liaoning in China make it possible for archaeologists and historians confirm again that the historical materials of the Samguksagi are reliable in comparison with the archaeological data, which means that the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goes in gear with each other forming a genuine historical context like the toothed wheels inside watch.

key words: historical context, Samguksagi(『三國史記』), Goguryeo

* Professor, Dept. of Archaeology and Art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